

새로 공개된 四象醫學 자료 5종의 史料 가치

안 상 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bstract

The historiographic value of newly found 5 book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make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nd to discuss the historical value of several literatures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stablished by Jema Lee(1837~1900). Literatures are as follows:

1. 『HamsanSachon Donguisusebowon(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newly found draft of 『Donguisusebowon』 that contains an old edition written in 1894.
2. 『Bojeyeonseol - Supplement of Donguisusebowon(普濟演說-東醫壽世保元補編)』; a clinical book which is regarded as to had been published before the first edition of 『Donguisusebowon』 was printed.
3. 『Gyukchigo appendix(格致藥-附錄)』, 『Sasang Medicine-A Memorandum of the first edition(四象醫學草本卷備忘錄)』; which were aquired in Yanbian(China) several years ago.
4. 『Donguisusebowon』-The first edition published in 1901; owned by Mikki Sakae(三木榮), a Japanese medical historian.
5. 『Donguisusebowon』 - Manuscript; poetry on natures of herbal drugs are appended.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r. Lee Je-ma, manuscript of 『Donguisusebowon』, 『Bojeyeonseol』

일찍이 사상체질의학의 창안자인 東武 李濟馬(1837~1900)는 백년 후에 사상의학이 이 땅에서 큰 빛을 발하리라고 예언한 바 있다고 한다. 그는 구한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기의 어지러운 조선 땅에 태어나 우리 민족의 疾苦를 구하고자 새로운 의학을 갈구하였다. 올해는 이제마 선생이 서거한 지 1세기를 넘겼고 또 사상체질의학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1901년, 辛丑)이 처음 출간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선구적 업적을 남긴 그의 예지를 운명론적 시각으로 대입해 보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근래에 사상체질의학 관련 연구서가 부쩍 늘어났으며 일반인의 체질의학에 관한 관심 또한 예년에 보기 드물게 고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동의수세보원』의 의학적 해석과 임상적 응용에 매달려 왔던 기존의 경향과 달리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 또는 『格致藁』, 『明善錄』, 『東武遺稿』 등 일련의 동무유작과 관련 저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역작업과 해석서의 출판은 우리 시대의 사상의학 관련 연구가 진일보했음을 입증한다.

이와 함께 『四象醫學草本卷』, 『東醫四象新編』 등 직계 제자 혹은 제 2세대 사상의학들의 임상경험이 담긴 저술들이 연구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의 진위여부나 임상적 가치를 논위해야만 할 시점이 되었다. 아울러 『동의수세보원』을 비롯한 원자료에 대한 해석상의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후속 저술에 대한 평가와 조명을 위하여 새로운 사료 또한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한의학의 가장 독창적인 전통의학론으로 부각된 사상체질의학이 태동된 지 1세기 남짓한 시점이지만 일제침략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서적 등 태반의 자료가 인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세기 냉전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함경도 일원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사상의학자들의 족적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상체질의학의 발전을 기술했 때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도 근래 중국과의 수교, 민간차원에서의 북한과의 제한된 교역 등으로 일부 초분류 자료와 함께 사상의학들의 연구성과가 전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비슷한 시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藏書閣과 북한 보건성에서 발견된 『동무유고』는 다소 그 내용이 다른 이종의 필사본으로 사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필자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한의학술정보DB 구축을 위하여 한국의학자료를 수집해 오던 중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몇 가지 사상체질의학 관련자료를 구하게 되었으며 한의학계 저변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이들 원본자료를 서둘러 영인하여 펴낸 바 있다. 여기에는 새로 발견된 동무선생의 초고본 『동의수세보원』-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비롯하여 『동의수세보원』의 초간본 간행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의학 임상자료집 『普濟演說』(東醫壽世保元補篇), 수년 전에 연변에서 입수된 『格致藁-附錄』, 『四象醫學草本卷備忘錄』, 저명 의사학자인 日人 미끼 사카에(三木榮) 舊藏 辛丑 初刊本 『東醫壽世保元』, 그리고 體質別藥性歌가 첨부된 필사본 『東醫壽世保元』을 포함 5종의 사상의학 관련 자료가 담겨져 있다.¹⁾

본고에서는 이들 5종의 자료에 대한 해제를 중심으로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 서지학적 특징을 서술하고 아울러 이들 자료의 사료가치를 論究해 보기로 한다.

1) 논구의 대상인 5종 자료의 목차와 원문은 이미 출판된 영인본을 참조. 안상우 편, 『한국의학자료집성Ⅱ』,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I. 사상의학자료 5종의 특징

1. 咸山沙村 甲午舊本 東醫壽世保元

未定稿『동의수세보원』중의 하나로 원고초본의 傳寫본인 셈이다. 이것의 대본은 동무의 아들인 龍海의 집에 두루말이 형태의 卷子本으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며, 광복 전인 1940년경 소장자 이씨 집안에서 필사자인 韓敏甲을 시켜 어렵게 謄寫하여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한다.²⁾ 근 10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은 채 후손의 집안에 家藏品으로 전해진 것만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거니와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어찌 우연만은 아닌 듯한 감회를 갖게 한다.

현전 초본은 線裝本으로 製冊되어 있고 겉표지 題簽에는 『동의수세보원』이라는 큼직한 글자가 쓰여 있으며 그 아래 甲午舊本이라는 明文이 두 줄의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현재의 咸興을 말하는 咸山 그리고 이제마의 본가가 위치한 동네 이름 沙村이 조금 내려서 적혀 있다. 內題紙에는 동일한 글씨크기로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라고 내려 적어 놓아 원본이 무엇이었는가는 명확하다.

이러 본문의 목록이 달려 있는데 각 권별, 의론, 약방별로 조문의 수가 일일이 집계되어 있고 庚子本과 대비되어 있다. 곧 목록 말미에는 ‘總五百九十九條 甲午舊本, 五百二十六條 庚子新本’이라고 적혀 있어 상세히 대조한 결과를 기록해 두었다. 또 본문 첫 장의 題下에 ‘(備考) 舊本甲午本, 新本庚子本, 印本辛丑本’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동무선생이 改草해 나간 경과를 알 수 있고 대조된 판본의 구분이 적시되어 있다. 본문 전체는 조문별로 행을 바꿔 적고 각 조문의 상단에는 권과 병

문별로 일련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신본과 대조하여 구본의 내용만 적고 새로 추가된 부분은 제명만 적은 다음 ‘出新本’이라고 注記를 달아 두어 구본의 원모를 간직하고자 세밀하게 대조하여 기록해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권 4의 太陽人論에는 ‘以下出印本無新本’이라 기록되어 있어 태양인론은 1901년 초간본 출간 시에야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동무가 생전에 마지막까지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질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³⁾

따라서 이 寫本의 본문이 甲午本의 舊文이고 ‘出新本’이라는 주기가 붙은 조문은 동무 생전에 改草한 부분이며, 印本이라고 명기된 부분은 동무 사후 인쇄본으로 출간할 때 추가로 삽입된 내용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원래의 초고본 599조가 개초 후 526조로 개정되어 상당 분량이 개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권 2의 少陰人新定藥方 다음 맨 끝에 수록된 ‘窮巷僻村.....’ 운운한 1조문과 앞서 지적한 태양인론은 애초에 동무의 원고에는 없었으나 栗洞契 문인들에 의해 신축판이 간행될 때 補入된 동무의 遺文으로 보인다.

재미난 부분은 四象人辨證論에서 체질별 구성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구본에서는 1만명 중 소양인 5천, 태음인 3천, 소음인 2천, 태양인 3, 4~1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印本에서는 차서가 바뀌어 태음인 5천, 소양인 3천으로 크게 비율이 다르다. 눈을 돌려보니 신축판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少陽人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四象人辨證論)

2) 이 사본의 마지막 장에 “歲庚辰七月二日韓敏甲筆”로 명시되어 있고 본문 첫 장 하단에는 현 소장자인 이성수씨의 선친 李鎭胤씨의 인장과 대형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3) “嗚呼! 公甲午畢書後,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草, 自性明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 而太陽人以下三論, 未有增刪. 故今以甲午舊本, 開刊.”(辛丑版 刊記)

그렇다면 신축판의 동일 주제 항목인 四象人辨證論 안에서조차 앞에서는 소양인의 人數가 많고 가장 구별하기 쉽다고 하고 끝이어 뒤에서는 태음인의 비율

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술한 것이다. 즉, 앞뒤의 문맥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구 분		甲午舊本	辛丑印本	비 교
대 상	지역	北道山谷	없음	*
	인수	10,000/1 縣	10,000/1 縣	同
체질분류	소양인	5,000	3,000	*
	태음인	3,000	5,000	*
	소음인	2,000	2,000	同
	태양인	3,4 ~ 10여명	3,4 ~ 10여명	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우선 설명의 대상이 구분에서 ‘北道山谷’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 반면 신축본에서는 빠져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이 문장은 갑오구본 간행 시 함경도 인근의 소양인 위주의 사상인 분포가 신축판 간행시 태음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미처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이지 않을까?

한편 구분에는 이 한 조문 외에는 인본에 보이는 변증론의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 구분에는 있지만 인본에서 삭제된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此書雖出今人之手，實是千古醫家稀罕之書。此書任古今之是非，決醫藥之樞軸，雖一字誤書，則爲作者之大累。”⁴⁾

위 글에서 동무선생은 이 책이 비록 조선의 궁벽한 선비의 손에서 나왔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의학서이며 고급의 시비를 가리고 의학의 근간을 정했다는 자부심을 피력하고 있다. 게다가 한 자라도 잘못

쓴다면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를 남겨두어 후일 미숙한 초심자의 실수와 이해부족으로 인한 변질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서, 우선 추측과 달리 간행 이전의 상태에서는 廣濟說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四臟腑의 용어 설정이 다르고 四焦의 원 형태가 담겨져 있어 사상인의 설정 이후 지속되는 人品臟理와 事心身物 등 사원구조의 의론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다.⁵⁾

시기적으로 이 갑오구본은 동무가 낙향하여 1900년까지 改草하고 있었던 庚子本과 동무 사후인 1901년 栗洞契 門人들에 의하여 간행된 『동의수세보원』 印本の 원 형태로써 철학적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고 醫理에 있어서도 또한 시각이 다른 면이 있다. 갑오본의 작성 양식을 보면, 각 조문은 卷次보다는 항목별로 상단에 일련번호를 별도로 표기해 두었고 전체 조문수도 경자본과 대조하여 집계해 놓고 있어 아직 출판을 위한 권차와 편제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 이 마지막 조문 아래 ‘出新本，無印本’이라는 필사자의 注記가 달려 있어 인쇄본에서 빠진 동무의 문장이 분명하다.
5) 상세한 내용은 이 초본을 찾아내 대조 연구한 논문을 참조. 이경성, 「갑오본 동의수세보원의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 연구원논문집, 6/1, 2000.

일자일구까지 전심을 기울인 동무의 집필태도를 보아 권차와 상관없이 매 조문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은 마치 張仲景 『傷寒卒病論』의 遺文을 보는 것과 같은 감회를 느끼게 한다.

이 초본의 발견으로 갑오구본이 1893년(癸巳) 7월부터 1894년(甲午) 4월까지 9개월 가량 불철주야 쉬지 않고 집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과 작성과정과 시기에 대한 辛丑版의 언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此書，自癸巳七月十三日始作，晝思夜度，無頃刻休息，至于翌年甲午四月十三日，……”(四象人辨證論)

또 漢南山 아래 있었던 『朝鮮名人傳』의 저자 李能和의 집에서 작성했다는 『동의수세보원』의 원고가 다름 아닌 바로 이 갑오본을 지칭하는 것임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⁶⁾

연구원 논문집에 발표된 이 갑오구본에 대한 논구⁷⁾와 같이 『동의수세보원』에 담겨진 사상체질 의학설은 일조에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끊임없는 思辨과 임상 관찰 끝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었던 것이다.

2. 普濟演說

원저자를 확인하지 못한 필사본으로 초창기 사상의학의 임상적용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원본은 전통식 線裝本 형태로 製冊되어 있었지만 얇은 신식 미봉지에 인쇄된 편찰지에 毛筆로 적혀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작성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초간본 『동의수세보원』이 1901년에 선보였기 때문

에 서문의 庚子年을 1960년일 것으로 여겼으나 年紀 다음의 閏秋라는 기록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⁸⁾ 1900년과 1960년 모두 윤달이 들어 있지만 1900년에는 음력 8월에 1960년에는 6월에 해당된다.⁹⁾ 절기로 보아 전자는 立秋, 處暑가 다 지나가고 秋分 다음날부터 윤달이 시작되므로 명확히 가을이며, 후자는 大暑節 다음날부터 윤유월이 시작되므로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의 서문에 보이는 명문상으로는 분명 동무선생이 운명(1900년 9월)할 무렵이며 아직 신축판 『동의수세보원』 印本이 나오기 전의 일이다.¹⁰⁾

따라서 이 책에 기록된 사상의학의 임상경험 기록이나 사상체질의학에 관하여 부연된 의학논설은 아마도 동무 이후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일선 의사로 생각되며 『동의수세보원』을 접하고 자신의 임상경험과 결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특히 권말에는 ‘東醫壽世保元補編’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 간행 이전의 『동의수세보원』을 근간으로 사상체질의학설을 수용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주 내용을 보면 ‘普濟演說’, ‘人生日用說’ 2편의 논설 속에 『동의수세보원』의 골자를 이루는 조문을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다. 이후 四象流行圖, 天地運氣, 臟腑總圖에서는 『동의보감』의 운기와 장부론을 대입하였고 汎論에서는 相書의 觀相術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합하고 있으며, 王叔和觀病生死候歌, 四象六經歌에서는 맥론과 상한육경증의 결부를 시도하고 있다. 이어 四象相貌及藥種, 四象應用藥方 역시 수세보원의 내용을 간추려 적은데 불과하다. 또 大人門, 眼門, 耳門, 大小便

6) “光緒甲午四月十三日 咸興 李濟馬 畢書于漢南山中”(辛丑版 刊記)

7) 이경성. 앞의 논문.

8) “庚子閏秋序”(普濟演說序)

9) 大韓曆法研究所 編. 『新南山萬歲曆』, 서울: 남산당, 1985.

10) 신축판 刊記에는 ‘大韓光武五年辛丑六月日’ 즉 1901년 음력 6월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門, 癰疽門, 婦人門, 小兒門으로 대별된 경험방을 두 줄로 뿔뿔이 수록해 놓았는데 여러 경험방서들에서 모아 놓은 듯한 낱익은 처방들이지만 간혹 어떤 처방에는 ‘少陽人尤好’¹¹⁾와 같이 체질에 따른 임상효과의 차이를 적시한 곳도 있어 상당 기간 사상체질에 따른 처방 약제의 효능 편차를 관찰해 왔던 임상경험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普濟演說’ 본문 가운데는 사상의학설에 입각하여 자신이 목도한 짙막한 경험의안도 적혀 있다.

“余於定平地, 曾見少陽人外感, 誤服小柴胡湯, 不日即死也, 其故何也? 柴胡黃芩, 雖除少陽之熱, 人蔘半夏, 果是少陽禁藥也, 豈可生乎!”(普濟演說)

定平은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군으로 동무의 연고지인 함흥이나 함주군의 남쪽과 인접한 곳이다. 동무의 자료에는 딱 한번 등장하는데, 장서각본 『동무유고』의 제 15편 追錄중에 동무의 亡妻인 경주 김씨의 묘가 있다고 적힌 것이 유일하다.

여하튼 이 책은 크게 보아 맨 앞쪽에 사상개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운기, 장부, 진단(상학과 맥론), 상환을 연계한 다음, 사상인의 외형과 체질약제, 처방의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이 권 1과 권 4에 앞뒤로 붙은 의론을 제하면 소음, 소양, 태음, 태양인의 순으로 체질병 병론과 약방으로 열거한데 비하여, 이 책에서는 내용을 위주로 배열하고 각 문 아래 체질별 항목을 세분하는 식으로 편재되어 있다.

원래 이 책은 뒤편에 『麻疹神方』이라는 題下의 또 다른 사본과 合冊되어 묶여져 있는데, 전혀 別編을 이

루고 있다. 또 마진신방편은 이 보다 앞선 시기의 원본을 베껴둔 등사본이다.¹²⁾ 때문에 앞 뒤 편의 내용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부분의 ‘보제연설’과 관련하여 이것이 1900년에 작성된 원고를 대본으로 轉寫된 사본임을 추정케 한다.

여하튼 이 책은 갑오구본이나 경자개초본 사이의 필사본을 보고 자신의 임상경험과 부합시켜 부연한 의문집으로 초창기 사상의학 수필시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 가치가 있다.¹³⁾ 또한 초간본이 아직 나오기 전의 임상기록으로 작성자가 동무의 주변 인물이거나 생전 제자일 가능성이 높아 더욱 사료가치가 높다 하겠다. 다만 작성자가 서울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 동무가 서울에 체류하면서 『동의수세보원』의 초고를 집필하던 시기에 사상의학을 접했던 인물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각 체질별 처방에 있어서도 『동의수세보원』의 기본방과 상당수 차이가 있어 대조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의학계의 상세한 논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3. 格致藥附錄 / 東醫四象初本卷備忘錄

두 편의 遺文이 합쳐져 있는 草本의 일부이다. 이 자료가 연변의 조선족 사상의학과 의가로부터 국내에 전해진지도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연변 사상의학과와 교류를 위하여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 측 사상의학회 회원들에게 전해졌던 이 자료는 어찌된 영문인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개인의 수중에 머물러 있었다. 필자가 이 자료를 접한 후 연구원 자체 세미나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활자화하지 못한 채 또 수년이 흘렀다.¹⁴⁾

11) 經驗方 大人門의 石淋, 眼門의 洗爛弦風赤眼方.

12) 서문은 ‘聖上四年歲在丁卯九月上澣’으로 되어 있어 그 원본이 高宗4(1867)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고 抄寫記에는 ‘黑羊秋七月仲旬 謄寫于阿峴草舍’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黑羊은 癸未年으로 1883년과 1943년이 가능하지만 紙質 상태로 보아 후자인 1943년경으로 추산된다.

13) 서문의 작성시기와 현전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서만 나타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草藥本의 문장을 중심으로 엮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格致叢附錄』에는 ‘各道風俗, 壯固者降心安和而壯固也非降心壯固也, 治癩’ 단 3편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뒤의 두 편은 臨床醫案에 해당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맨 먼저 수록된 ‘各道風俗’편인데 팔도인의 기질적 차이가 설명되어 있다. 묘하게도 학술외적인 면에서 이런 종류의 글이 간혹 세간의 시비 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 수년전이지만 필자 역시 이 자료를 보고 다소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무이전에도 지역 특성에 따른 기질 차이를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참고로 嘉藍 李秉岐 선생이 수집하여 채록한 古語集中에 ‘八道人心’조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京畿道鏡中美人 / 忠清道清風明月
全羅道風前細柳 / 慶尙道泰山喬嶽
黃海道清波投石 / 平安道青山猛虎
江原道巖下老佛 / 咸鏡道泥田鬪狗
(方言/ 古人이 본 八道人心)¹⁵⁾

다행인 것은 이 자료가 입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서각본 『東武遺稿』가 공개되고 여기에 다소 문장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제목의 ‘各道風俗’이 실려 있음으로 해서 진위논란은 불식하게 되었던 셈이다. 또 ‘壯固者降心安和而壯固也非降心壯固也’라는 다소 긴 제목

의 醫論과 ‘治癩’에 실린 醫案은 보건성 『동무유고』에 ‘金鳳舜癩病治癩例’라는 제목으로 합쳐져 들어가 있다.

여하튼 이들 자료는 東武의 遺文이 金九翊의 抄寫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동무의 원고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魯山의 필적이 맞다면, 애써 동무를 빙자하여 조작할 개연성의 소지는 없는 것 같다. 다만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의 처방들은 현전 『동의수세보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상, 중, 하통의 39조의 처방¹⁶⁾중 『동의수세보원』을 비롯한 동무 원저 수록방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한 개의 처방도 없다. 또 활투식 삼단분류에 의한 처방수록 방식이라든가 현전 『朝醫學』에서 나온 사상의학초본권의 분류방식과 거의 흡사해 『동의수세보원』 계열의 처방이라고 하기 어렵다. 계통적 분류가 명확해진 않지만 연변에서 나온 『사상의학초본권』의 ‘제3 권(약방)’에 수록된 처방과는 거의 일치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자료는 모두 김구익의 제자인 손영석이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 경로가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았었다.^{17),18)} 이에 대해 국역된 『동의수세보원초고』¹⁹⁾의 머리말에서는 “1936년 김구익이 자신의 제자인 林鳳宇와 함께 목단강을 건너 함흥에서 의술을 펼치던 동무의 마지막 애제자, 최경용(?-1941)을 찾아가 『사상의학초본권』을 필사했고 그 뒤 1951년 이 책을 펴냈다.”고 되어 있다.²⁰⁾ 애초에 그것이 초고본 상태의 필사전본이며 필사의 잔편 혹은 발췌본인지라 몇 가지 명확하지

14) 1996년 초 연구원자체 세미나에서 필자가 약식 보고한 적이 있고 이어 장서각 『동무유고』가 세간에 알려졌다.
15) 한국어문연구회, 사단법인 한국어문화회. 『가람 이병기의 국문학 연구와 시조문학』, 한국어문연구회 제140회 학술연구발표회, 2001.
16) 상통(태음인처방) 15방, 중통(소음인처방) 12방, 하통(소양인처방) 14방과 부기된 2방을 합하여 총 41방이 기록되어 있으나 부기방은 鐵筆로 덧붙여 쓴 것이라 본문 수록방과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다.
17) 『四象醫學臨海指南』의 마지막에 실린 ‘金九翊先生生平簡介’(龍井 孫永錫 정리)에는 김구익(1880-1969)이 15세 때부터 조선의학자인 安亨來의 門下에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했으나 『四象草本卷』에 대해서는 ‘親自手抄傳’이라고만 밝혀져 있다.(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의약연구소 편. 『朝醫學』)
18) 또 하나 張文宣의 「朝醫四象醫學發展簡史」, 中華醫史雜誌(198?), p.251.중 ‘中國朝醫四象醫學的傳入及發展’에서 “19세기 말 사상의학이 『사상초본권』의 手抄方式로 연변에 傳入되어 민간에 유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 김달래 편역. 『東醫壽世保元 草藥』, 서울: 정담, 1999.
20) 『사상의학초본권』의 傳本 내려과 문헌분석에 대해서는 이수경·송일병.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의 서지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11/1), 1999를 참조.

않은 문제점이 있으나 여하튼 넓게 보아 이 초본에 수록된 내용은 동무 생전 혹은 직계제자들에 의해 가감 활용된 처방들로 초기 임상적용의 실례로 참고가치가 있다.

원래 『格致藁』는 1880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1893년에 완성된 책으로 이제마가 유학적 철학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이 정리하여 완성한 철학서이다. 전 3권으로 구성된 내용은 크게 「儒略」, 「反省箴」, 「獨行篇」으로 되어 있는데, 1940년에 韓斗正이 간행한 초판본에는 부록으로 「濟衆新編」과 「遺藁抄」가 덧붙여져 있다. 그런데 1930년에 姜齊模가 필사한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에는 부록의 두 편이 없다.²¹⁾ 아마도 이 두 편은 『격치고』 원문의 정리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거나 『동의수세보원』이나 『동무유고』의 정리 과정에서 철학적 성격을 고려하여 『격치고』에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격치고부록』에 들어 있는 3편의 논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격치고』 원고의 정리과정 혹은 간행 시에 제외된 것 중 일부가 傳寫되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참고로 「濟衆新編」은 丁酉年(1897), 「遺藁抄」는 乙未年(1895)으로 작성시기가 밝혀져 있고 『격치고』 원고의 본문은 1880년에서부터 1893년까지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략 이 초본은 1894년 이후에 정리된 초고의 殘片으로 여겨진다.

4. 辛丑 初刊本 東醫壽世保元

1901년 처음 선보인 初刊本으로 내용이야 이래저래 다 알려진 것이지만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본은 4판본과 7판본으로 초간본은 매우 드물다. 현재 발견된 것으로는 장서각 소장본의 초간본이 있으며 이것은 1998년 영인된 바 있다.²²⁾ 하지만 이 영인판은 판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 내용의 原字를 오려붙이기 형식으로 집자한 것이어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는 아닌지라 影印本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본의 集字本이라 해야 할 것이다.²³⁾ 본고에서 다루는 三木榮 所藏本은 落張이나 缺字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된 完本으로 대조본으로서 참고가치가 크다. 장서각에 소장본 역시 4권 2책의 完本이나 보존 상태는 이보다 三木榮 所藏本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첫 장의 제목 하단 여백에는 전자체의 朝鮮醫學圖書라고 새겨진 양각의 정방형 장서인이 있고 또 그 아래 같은 크기의 음문에는 ‘三木文庫’라 새겨져 있다. 판면은 10행 22자로 판면의 구성이나 활자체가 장서각본과 일치하여 동일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행시의 삽입이나 아니면 소장자의 懸吐인으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卷之一의 口訣은 장서각본과 대조할 때 구결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고 印面도 동일하여 초간본의 인쇄와 함께 붙여진 것이 확실하다. 이후의 판본에서도 흔히 권1에만 현도되어 있는 점도 역시 초간본의 것을 중시한 결과로 생각한다.

전편을 세밀히 대조하진 못 했지만 현재로서는 장서각본과 다른 점이라고는 卷之二 2板의 板心に 면수를 표기하는 숫자가 있고 없다는 차이 밖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즉, 현전 장서각본에는 해당하는 면의 頁數가 누락되어 있는데 三木榮藏本에는 누락 없이 제대로 되어 있다.²⁴⁾ 그 이유는 초판본의 후쇄 사실이나 교정지가 끼어 들어갔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21) 박성식 역주. 『격치고』, 서울: 정계, 2000.

22) 四象醫學會. 8版 『東醫壽世保元』 서울: 대성문화사, 1998.

23) 서명 아래 ‘1901년판 초판본 영인본’이라는 명기가 있다.

24) 舊 李王職圖書 子部 醫家類 3-328로 분류된 完本을 지칭하는 것으로 Microfilm No.20에 ‘二’가 缺落되어 있다. 이에 비해 下冊이 결권된 또 다른 장서각 소장본(古第001551)에는 이 부분에 缺字가 없다.

있으나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주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중요성은 없다.

본문 다음의 白紙에 기록된 소장자인 三木榮 자필 藏書記에는 “本刊本은 原刊本으로 流布本(流布本은 活版本)과 비교적 가가워 保存한다. 丙子肆月 大茶□ 識” 고 적어 놓았다. 따라서 미끼 사가에는 진즉 이 초간본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가 1936년경 이 책을 수중에 넣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三木榮은 조선 의학서를 모아 소개한 『朝鮮醫書誌』를 집필하였으며, 朝鮮醫學史 분야의 대가였다. 『조선 의서지』²⁵⁾에 의하면 活版本에 붙어 나온 韓教淵의 序를 실어놓았는데 3판본으로 소개하고 있어 위에서 설명한 流布本이 이 3판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⁶⁾ 또 괄호 안에 ‘著者藏’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판본을 의미하는지 木活字本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1956년 출판한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 때 이미 이 초간본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²⁷⁾

5. 필사본 東醫壽世保元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印本을 토대로 金容俊이 新式鉛活字로 재판한 것을 淨寫한 사본이다.²⁸⁾ 본문은 저본 그대로 동일하므로 크게 가치를 둘 것이 없으나 각 체질별로 藥性歌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사본의 작성자도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복사본 상태로 입수된 것을 필사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일부 대학가에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명의 독지가에 의

해 공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醫學入門』에서 사상체질별 主藥의 藥性歌를 가려 뽑아 수록한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醫學入門』은 주지하다시피 동무 자신이 醫源論에서 歷代 醫家 중 後世醫家의 대표적인 명의 중 한 분으로 거명한 李梴의 대표작이다. 『의학입문』의 약성가는 간결하고 운율 배합이 적절하여 조선후기 의가들에게 『萬病回春』의 藥性歌와 함께 가장 많이 암송된 약성가 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약물의 약성을 논하는데 무엇보다도 적합한 약성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필사자의 임의적인 발췌로 여길 수도 있지만 아마도 초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승과정 중에 귀결된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내용 중에는 동무의 原旨를 糊塗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무의 원지와는 무관함을 밝힌 필사자의 명문이 주석으로 들어 있다.

“少陰人藥性歌, 出於李梴醫學入門書中(此藥性歌, 非先生之所錄, 乃爲後學者, 書之于左).”

卷之二의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 다음에 수록된 이 내용은 분명 동무의 기록이 아니라 후학자의 공부를 위해 입문에서 발췌 수록했음을 명시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다 앞서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藥二十三方’의 내용이 전개된 본문의 상단에 초록된 약재명이다. 桂枝, 白芍, 甘草, 生薑, 大棗 순으로

25)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增修版), pp.158-160.

2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편. 『사상의학』에는 이 보다 앞서 1913년에 간행한 3판본이 기록되어 있고 韓教淵의 序가 실린 것은 4판본으로 1914년에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7) 현재 이 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본디 수년 전 소장자의 후손으로부터 복사본이 전해졌지만 근간에 다량의 三木榮 연구노트와 비망록이 고서시장을 거쳐 기사사토 동양의학연구소에 소장된 것을 목도한바 있다. 다만 武田杏雨書屋에도 三79로 분류된 1책2冊의 活字刊本이 등재되어 있는데 같은 책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8) 본문에 앞서 1914년에 지어진 誠堂 韓教淵의 東醫壽世保元序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金容俊이 京城 普及書館에서 발행한 책이 모본이 되었을 것이다.

면을 바꿔가며 총 87종의 약물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니 다른 아닌 동무의 소음인 처방의 구성약재를 순서대로 발췌하여 초록해 낸 것이다. 즉 여기서 예시한 약물은 소음인 第一方인 상한론 桂枝湯의 구성약재와 동일하다. 두 번째로 수록된 처방은 理中湯인데 여기서 人蔘, 白朮, 乾薑을 발췌하고 감초는 앞서 채록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또 그 다음 처방은 薑附湯으로 炮乾薑과 炮附子 두 가지 약재 중 앞 처방에서 나온 건강은 제외하고 부자만 들어 쓴다. 이런 방식으로 상한론 소음인병경험약방 23방과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 13방, 巴豆藥 6방,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 24방 총 66종 처방의 구성약재를 겹치지 않게 1종씩 추출해 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약재는 모두 160종이었고 결국 이 약재들은 동무가 소음인 병에 사용한 약재를 통괄한 것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른 체질별 약재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괘 상단 여백에 기록된 약재명은, 소음인 87종, 태음인 23종, 소양인 44종, 태양인 6종이다. 다만 태양인 약재의 경우에는 수가 적어 기억하기 간편했던지 상단 여백에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출된 약재명을 적어두고 다시 이에 해당하는 약재의 약성가를 『의학입문』의 약성가에서 초록하여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성가 부분만큼은 온전히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발췌 수록한 것임이 분명해 진다. 이것은 초기 사상의학의 입장자들이 아직 동무의 原義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려 했던 흔적임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동의수세보원』의 독특한 藏理와 승강출입의 이론에 걸 맞는 약성론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이며, 또한 사상의학이 미완의 의학이 아닌 생성의 의학으로 다듬어져야만 함을 생각

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본에 실린 약성가는 표면적인 발췌 수록 이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東武선생이 親作한 약성가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東醫壽世保元草本卷』 6統에 일부 藥理가 개술되어 있을 뿐이다. 『朝醫學』에는 사상체질별 약리에 1)약성가, 2)약물수증가감, 3)약물불량반응, 4)要藥으로 항목을 나누어 잘 요약이 되어 있고 四象方劑學에는 일부 처방에 便誦訣을 소개하고 있어 상당히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²⁹⁾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東武는 醫源論에서 李梴의 『의학입문』을 역대 주요의학저술로 손꼽을 만치 중요시했다. 또 『동의수세보원』의 太陽人論에 ‘本草所載太陽人病經驗要藥單方十種及李梴龔信經驗要藥單方二種’이 실릴 정도로 이전의 용약법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본에서 의학입문 약성가를 채록하여 본편에 삽입한 것이 작성자의 임의에만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동무의 용약정신과 당시 사상의학의 본초학적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권 1의 상단 여백에는 救荒方을 조사해 두었는데, 飢困將死人救活法, 飢腫人治療法, 取松葉末法, 取榆皮汁法, 作松葉酒法, 作榆皮餅法, 作糲法, 取穀末法, 荏子服食斷穀..... 등으로 이것은 申澍의 『新刊救荒撮要』에서 채록한 내용들이다. 이외에도 본문 뒤에는 여타의 사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필사자의 관심사가 초록되어 있는데, 의학의 적인 것으로 男女宮舍方法과 闕里歌가 붙어 있다. 앞의 것은 흔히 보는 六十四卦의 과사로 풀이한 宮舍法이고 뒤의 것은 歌辭體의 한글혼용문이다. ‘어화벗임에야 / 집구경가자 씨라.’로 시작하는 이 노래가사는 우주음양의 이치와 삼강오륜에 의탁한 유가적 인생관을 노래한 것이다. ‘闕里’라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속의 궤적을 궁궐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이 재미있고 儒醫의 심정을

29) 제 4편 四象藥物及方劑學.

대변하기에 걸 맞는 작품으로 보인다.

한편 위의 ‘궐리가’와 관련하여 ‘공부즈궐리가孔夫子闕里歌’가 있다. 李家源이 1970년대에 처음 발견하여 공개한 이 가사는 退溪 李滉의 親作으로 알려져 있다. 勸善歌, 指路歌, 勸善指路歌 또는 安宅歌, 仁宅歌, 道德歌, 登樓歌 등의 별칭이 있으며 ‘退溪作勸善指路歌’, ‘退溪先生勸善指路歌’라는 명문이 남아 있고 퇴계의 후손집에서 발견된 ‘공부즈궐리가’의 끝에는 ‘先祖退陶夫子 지으신 거시라’라는 말이 붙어 있다.³⁰⁾ 본 ‘궐리가’와 ‘공부즈궐리가’를 비교해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우선 한글표기가 시대차이를 보이고 다소의 내용이 선후가 뒤바뀌어 있다거나 약간 내용이 보충되어 있다. 하지만 첫 구로부터 시작하여 대개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아 본 ‘궐리가’가 ‘공부즈궐리가’를 전사 혹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II. 5종 자료의 사료 가치

1. 現傳 東醫壽世保元の 판본서지

이들 자료의 사료가치를 논하기 위해 우선 광복이전에 출판 간행된 『동의수세보원』 원문본의 판본 서지를 개략적이거나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로 사상의학교제와 『朝鮮醫籍通考』에 실린 『동의수세보원』 원문본의 판본서지를 취합하고 각종 서지목록을 참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初版: 1901년(光武5년6월) 木活字本
서지사항: 4권2책, 威興 栗洞契 발행
소장처: 精文研 2종, 奎章閣, 中醫研究院, 武田杏雨書屋

- 2) 再版: 1911년(明治44년9월) 重刊鉛印本
서지사항: 函裝2책, 威興橋西 崔昌甲書店 발행
소장처: 白求恩醫大
- 3) 3판: 1913년(大正2년7월)
서지사항: 未詳³¹⁾
- 4) 4판: 1914년(大正3년2월) 重刊鉛印本
서지사항: 京城 普及書館, 金容俊 編輯兼發行, 誠堂 韓教淵 序
소장처: 연세대, 동국대, 고려대 등
- 5) 5판: 1921년(大正10년7월) 新鉛活字版
서지사항: 4권1책, 京城 博文書館, 金容俊 編輯兼發行
소장처: 성균관대 尊經閣,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경희대, 영남대, 대구효성카톨릭대, 충남대, 호남대, 上海圖書館, 武田杏雨書屋 등
- 6) 6판: 1936년(民國25년12월) 北京鉛印本
서지사항: 北平四象辨證醫學研究社 발행, 韓秉武 등
소장처: 北京圖書館, 北京師範大, 中醫研究院
- 7) 7판: 1941년(昭和16년)
서지사항: 4권1책, 韓斗正 편, 함흥 保元契 발행, 詳校懸吐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하버드대학 燕京學社 등 다수

위에서 3판본은 사상의학교제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서지 사항이 실려 있지 않다. 이외에도 崔秀漢은 1964년

30) 李家源,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 퇴계선생사백주기념사업회, 『퇴계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pp.173-180.

31) 1921년 발행 5판 刊記의 初版發行口에 의거.

평양의학출판사에서 발행한 朝漢文對照本을 조사하여 수록하였다.³²⁾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31년에 간행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본 도서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韓斗正 刊編의 石版本으로 1931년 함흥에서 간행된 4권 1책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원문을 인출하여 대조해 본 결과 1941년의 7판과 동일했으며, 서지목록 작성상의 오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³³⁾

또 현재 유포된 판본 중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59년 간행 謄寫本과 사상의학회에서 발행한 등사본 등이 있으나 광복 이전 판본의 재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본에 해당하는 신축 초간본은 국내에 3종, 중국에 1종, 일본에 1종이 전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반이 소장한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많이 유포된 것으로는 金容俊이 발행한 4판과 5판 그리고 韓斗正이 편집하여 保元契에서 펴낸 7판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신축 초간본을 새로 조판하여 펴낸 것에 지나지 않아 이중의 판본으로서의 가치는

미약하며 오히려 다소간의 변형이나 오탈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사상의학 원전류의 논구에는 반드시 초간본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 『동의수세보원』의 판본서지 조사에 참고한 목록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울러 현재 각 도서관에 소장 중인 초간본의 서지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李相殷 編, 『古書目錄』, 서울:保景文化社, 1987.
- *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 編, 『館藏中醫線裝書目』,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86.
- * 武田科學振興財團 杏雨書屋 編刊, 『杏雨書屋藏書目錄』, 京都:臨川書店, 1982.
- *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 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1.
- * 서울大學校 奎章閣,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保景文化社, 1994 修正版.
- * 國會圖書館司書局,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소장처	서명	등재번호	서지사항	비고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書閣	東醫壽世保元	藏K3-328	李濟馬(朝鮮, 1838~1900)著. 木活字版. 光武5(1901). 4卷2冊. 卷末: 光緒甲午(1894)四月十三日咸興李濟馬畢書	M F35/1899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書閣	東醫壽世保元	C7-18 古第001551	李濟馬(朝鮮)著. 木活字本. 咸興 刊年未詳 全4卷2冊 1책(제2책결); 四周單邊. 上下二葉花紋魚尾. 29.5×19.7cm	M F35/8414
서울大學校奎章閣	東醫壽世保元	古615.135-Y58d-v.1/2	李濟馬(朝鮮)編. 高宗31年(1894) 1冊(零本)活(木活字). 29.3×19.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2.7×16cm 10行22字 版心: 上下內向細花紋魚尾.	印:[韓稷淵]
中國中醫研究院(중국)	東醫壽世保元(四卷)	2022	1894 (朝鮮)李濟馬撰 大韓光武五年辛丑(1901)咸興郡栗洞契刻本	午1-1894
武田杏雨書屋(일본)	東醫壽世保元四卷	379	朝鮮 李濟馬撰 光武5(1901)門人金永寬等咸興郡活字刊本	

32)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東醫壽世保元』(朝鮮)李濟馬 著, 韓斗正 刊編. 石板本, 咸興, 金重瑞方, 1931. 4卷1冊. 청구기호: 貴-235 한-68-87

2. 시기별 고찰

□ 작성시기

- 1900년 이전 1-2,
- 1901년 ~ 1945년 이전 1-1(1940), 1-3(1936), 1-4(1901), 1-5(?)
- 1945년 이후

□ 원작의 저술시기

- 1900년 이전 1-1(1894-95), 1-2(1900), 1-3(189?)
- 1901년 이후 1-4(1901), 1-5(1914)
- 1945년 이후

위의 작성시기는 사본의 실제 작성시기를 말하며 원작의 저술시기는 초고의 저작, 혹은 『동의수세보원』의 간행시기를 의미한다. 1-5(필사본 동의수세보원)³⁴⁾의 경우 작성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甲寅上元’이라 적은 韓敎淵의 서문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4년 이후가 될 것이다. 작성시기와 저술시기 모두 1900년 이전과 1901년 이후가 구분점이 되는 것은 동무의 생전과 사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축판 초간본 『동의수세보원』의 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1-1(합산사촌 동의수세보원 갑오구본)의 경우 이른바 동무의 초고라는 갑오구본만이 아니라 경자본(改草本, 자료에서는 新本으로 지칭), 신축본(初刊本, 자료에서는 印本으로 지칭)이 모두 대조되어 조문마다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3. 醫家와 傳存 관련인물

□ 작성자

- 동무 원작류 1-5(栗洞契)

- 직계 제자 轉寫류 1-1(韓敏甲), 1-3(崔謙鏞, 金九翊)
- 기타³⁵⁾ 1-2(?), 1-4(?)

작성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동무의 原旨를 얼마만큼 충실히 반영하느냐는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식하곤 한다. 신축초간본 『동의수세보원』을 간행한 栗洞契 門人들은 동무 생전에 직접 垂敎를 받은 직계 제자들로 여겨진다. 여기에 수록된 門人名單에는 ‘金永寬, 韓稷淵, 宋賢秀, 韓昌淵, 崔謙鏞, 魏俊赫, 李燮垣’이 거명되어 있다. 이 중 崔謙鏞은 동무 생전에 가르침을 받은 마지막 애제자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에게 사본류를 전해 받은 김구익이나 龍海의 집에서 후손의 부탁으로 抄寫한 韓敏甲의 사본은 분명 轉寫本으로 구분된다.

□ 전래 경위

- 1-1: 東武 - 李龍海 - 韓敏甲 - 李鎮胤 - 李聖壽
- 1-2: (東武) (城北 四象醫家)
- 1-3: (東武) 崔謙鏞 - 金九翊 - 孫永錫
- 1-4: 東武 - 栗洞契 三木榮
- 1-5: 東武 - 栗洞契 (四象醫家)

전래 경위에 따른 대상 자료간의 상호관련성은 없다. 하지만 크게 보아 庚子本(新本)을 중심으로 간행된 木活字印本 계통의 보급과 이를 다시 증인하거나 필사한 초사본류와 동무 원작의 초고나 그 전사본 계통이 병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동무 사후에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간 개변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 후자의 경우, 완성본 이전의 초고본을 전사한 것이어서 정본과의 상위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4) 이하 정리된 표에서 서명을 대신한 숫자는 1장에 수록한 5종 자료의 수록순으로 소제목의 번호와 같다.

35) 기타 2종은 임상 의가의 원고 혹은 加筆本

4. 傳本의 계열과 형태

□ 전본의 계열성

- 갑오구본 계열: 1-1, 1-2, 1-3
- 신축간본 계열: 1-4, 1-5

□ 작성형태

- 인쇄본(목활자본): 1-4
- (필사)초본류: 1-1, 1-3, 1-5
- (필사)원고류: 1-2

구한말로부터 일제침략시기, 해방전후는 역사적 격변기이자 민족문화의 수난기로 의학뿐 만 아니라 모든 문화전반에 걸쳐 사료의 보관이나 傳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한의학의 고유 특색을 자랑하는 사상체질의학의 일차원전 및 태동기의 관련 자료는 거의 대부분 이 시기에 집필 작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상의학의 형성과 발전을 논하는데 있어 1차 사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대학교육체제로 이행되기 이전 단계의 전승 과정이 체계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근년에 들어 연변 조선민족자치구를 중심으로 朝醫學에 관한 다소간의 자료가 전해지면서 중국으로 전파된 사상의학과 의 일맥이 학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사상의학의 淵源을 소급하여 기술하기에는 자료가 태부족인 상태이다. 게다가 동무 원작으로부터 파생한 2차 저작이나 임상기록들은 대부분 초고상태로 작성된 채 인쇄되지 못했거나 설혹 출판되었다 할지라도 열악한 시대상황으로 인해 체제 형태가 부실한 상태의 허술한 양장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멸의 우려나 자연수명이 짧은 이들 사료를 시급히 발굴, 보존 혹은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 다룬 5종의 사상의학자료는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며 그 중에서도 1-1과 1-2는 최초로 공개되는 사료로써 『동의수세보

원』이 정리되는 집필과정과 사상의학이 임상에서 응용되는 일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 판단된다. 1-3은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 초본권의 잔편으로 여겨지는 자료로 동무의 임상 의안이자 의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역시 사상의학의 형성과정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다. 1-4는 의사학자 三木榮이 수집하여 일본에 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초간본 『동의수세보원』으로 장서각 소장본과 함께 현재 드물게 알려진 목활자본 完本으로서 원본의 보관상태가 좋고 보존가치가 높다. 1-5는 신축초간본을 필사한 것으로 다른 자료에 비해 사료가치는 높지 않으나 체질별 약성가를 첨부하여 초창기 사상의학자들의 임상적인 사상약제의 운용방식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초사본 사료이다.

結 語

『威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최근 공개된 사료로써 『동의수세보원』의 집필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갑오구본을 모본으로 신축 초간본과의 차이가 낱낱이 대비되어 있어 초고본으로부터 사상의학설이 정립되어 가는 이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普濟演說』 역시 저술 이후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동의수세보원』의 집필시기인 초창기에 사상의학설이 임상에서 응용되는 일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 사료라 판단된다.

『格致藥附錄』과 『東醫壽世保元草本卷備忘錄』은 각기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 초본권의 잔편으로 여겨지는 자료로 동무의 臨床醫案이자 醫論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역시 사상의학의 형성과정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다.

木活字本 『東醫壽世保元』은 의사학자 三木榮이 수집하여 일본에 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초간본 『동의수

세보원』으로 藏書閣 소장본과 함께 현재 드물게 알려진 목활자본 完本으로서 원본의 보관상태가 좋고 보존 가치가 높다.

필사본 『東醫壽世保元』(附藥性歌)는 신축초간본을 필사한 것으로 체질별 약성가를 첨부하여 초창기 사상의가들의 임상적인 사상약제 운용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초사본 사료이다.

이상 5종의 사상의학 사료는 사상체질의학의 형성시기에 작성되어 『동의수세보원』의 집필과정과 사상체질의학론이 정립되어 임상에 적용되는 발전양상을 살펴볼 수 있어 한국사상체질의학의 발전사에 참고할 가치가 크다. 아울러 『동의수세보원』에 담겨진 동무의 사상의학론에 대한 일체의 논구는 갑오본과 초간본을 대본으로 치밀한 고증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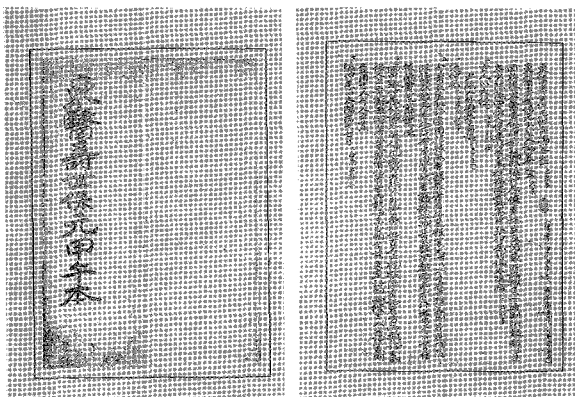
새로 발견된 동무 이제마(1837~1900) 선생의 초고본

『동의수세보원』-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비롯하여 『동의수세보원』 초간본 간행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상의학 임상자료집 『보제연설普濟演說』(東醫壽世保元補篇), 수년 전에 연변에서 입수된 『격치고부록格致藁附錄』, 『사상의학초본권비망록四象醫學草本卷備忘錄』, 저명 의사학자인 日人 미끼 사카에(三木榮)所藏 辛丑 初刊本 『東醫壽世保元』, 그리고 體質別藥性歌가 첨부된 필사본 『東醫壽世保元』을 포함 5종의 사상의학 관련 자료에 대한 해제를 중심으로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 서지학적 특징을 서술하고 아울러 이들 자료의 사료 가치를 論究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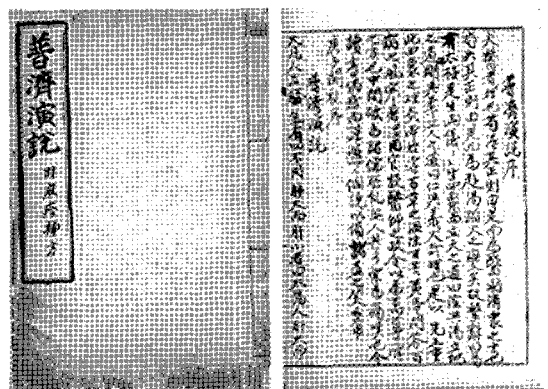
〈색인어〉 사상체질의학, 李濟馬, 초고본 『東醫壽世保元』, 『普濟演說』

書 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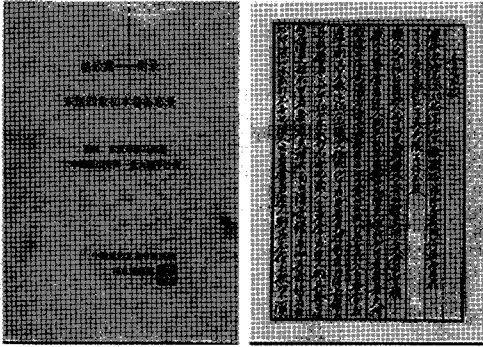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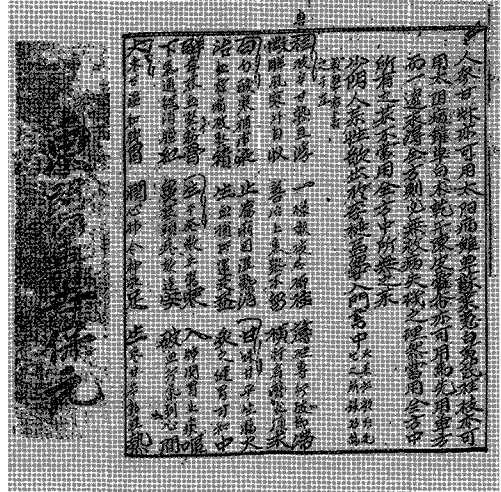
2. 『普濟演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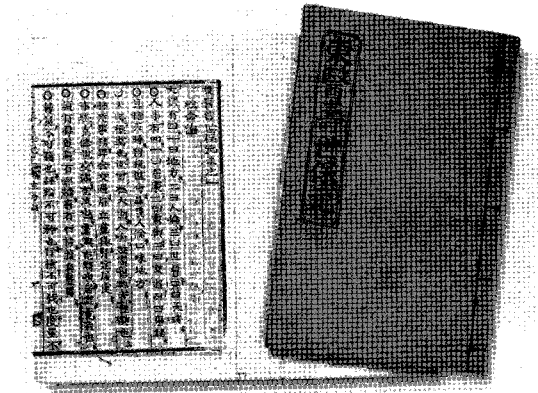
3. 『格致藁附錄』 /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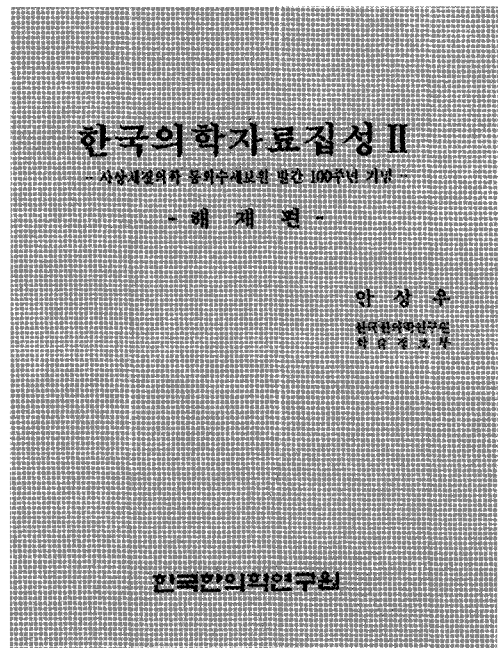
6. 筆寫本 『東醫壽世保元』



4. 『東醫壽世保元』 初刊本



7. 5종 자료를 영인한 『韓國醫學資料集成』(II)



5. 藏書閣 所藏本 缺落部와 三木榮 所藏本の 대비

